AI대변인 기초강의 · 따라하기 한 장

네 번째 꺾임 — AI가 불편한 게 당연한 이유 + 내 주제 찾기

걸리는 시간 11분 + 대화 5분 · 준비 폰 하나

영상 보기

AI가 불편한 건 고장이 아니에요. 그리고 AI가 모르는 건 내가 겪은 것 — 내가 할 일은 그 안에 있어요.

준비물

- 폰 하나 (제미나이 또는 챗GPT 앱)

1 영상을 끝까지 봅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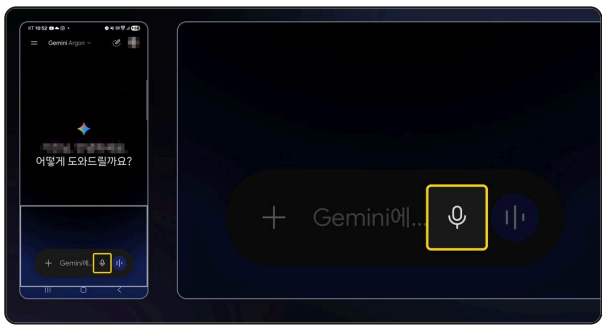
지동설 · 진화론 · 무의식, 그리고 AI. 세 번 다 처음엔 화를 냈고, 받아들인 뒤에 세상이 더 잘 보였어요.

2 질문 세 개를 떠올려 봅니다

① 내가 오래 해 온 것 ② 해 보고 싶었는데 못 한 것 ③ 사람들이 나한테 자꾸 물어보는 것

3 폰에서 AI 앱을 켜고, 입력칸 오른쪽 마이크를 누릅니다

자판은 안 쳐도 돼요. 말한 게 글자로 들어가요.



4 이렇게 말합니다

「나한테 질문을 하나씩 해 줘. 내가 오래 해 온 것, 해 보고 싶었던 것, 사람들이 나한테 자주 묻는 것. 다 듣고 나서 내가 AI랑 같이 해 볼 만한 주제 세 개만 골라 줘.」

5 AI가 묻는 대로 말로 대답합니다

길게 안 해도 돼요. 생각나는 대로.

6 세 개 중에 마음 가는 하나를 고릅니다

고르는 건 내가 해요. 그게 판단이에요. 고른 주제는 종이에 한 줄 적어 두세요.

여기서 막히면

- 마이크가 안 보이면 → 입력칸을 한 번 누르면 글자판 근처에 작은 마이크가 나와요
- 주제가 다 마음에 안 들면 →「다른 걸로 세 개 더」하면 돼요. 가게 메뉴판 · 손주 사진 앨범처럼 작은 것도 주제가 돼요

끝나면 이게 보여요 — AI랑 해 볼 내 주제 하나가 적혀 있습니다.

영상을 한 번 보고, 이 종이를 옆에 두고 따라 하세요. 막히면 그 번호만 영상에서 다시 보면 돼요.